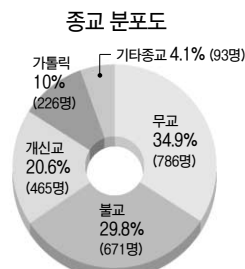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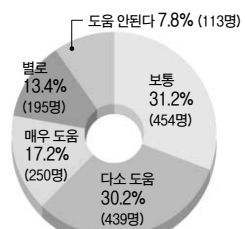


종립 초·중·고생 종교의식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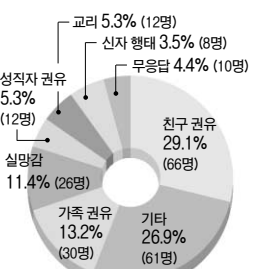
종립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은 종교에 대해 어떠한 의식을 갖고 있으며 현재 다니고 있는 종립학교에 대한 만족도는 어떨까. 본지가 종립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종교의식을 알아보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12월 1일~20일 전국의 28개 초·중·고 종립학교를 대상으로 우편설문을 통해 이뤄졌다. 설문지는 총 2,800부를 발송했으며 이 가운데 24개 학교 2,254명이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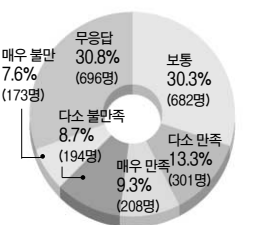
종교가 생활에 도움이 되나



개종했거나 개종 고민한 이유



종교수업 만족도



응답자 특성표		
성별	전체	비율
	남자	1383 61.4
	여자	870 38.6
학교별	초등학교	97 4.3
	중학교	1124 49.9
	고등학교	1033 45.8
거주지별	서울	665 29.5
	부산	459 20.4
	대구	163 7.3
	광주	199 8.8
	인천	461 20.6
	대전	107 4.7
	전북	197 8.7
	제주	3 0.1

마음 평안 얻기위해 종교 믿어요 68.9%

불교 신자 29.8%, 호감도 22.3%

종립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은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68.9%) 종교를 갖고 있으며 실생활에 도움된다(47.4%)고 여기고 있다. 불교에 대한 느낌을 묻는 질문에는 보통이 33.2%인 가운데 호감이 22.3%로 반감 12.1%보다 높았고, 청소년들은 친구(29.1%)와 가족(13.2%)의 권유로 개종을 고려했다.

또한 한글화되지 않은 경전 및 의식(14.1%)과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부재(13.3%)는 불교가 시급히 고쳐나 가야 할 점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종교수업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22.6%)이 불만족(16.3%)보다 다소 높았고 재미있고(22.5%) 불교를 알 수 있어서(16.3%) 만족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같은 결과는 본지가 전국의 초·중·고 24개 종립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2,2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립학교 청소년 종교의식 설문조사'에서 드러났다.

조사대상자 2,254명 가운데 불교신자는 29.8%(671명), 개신교 20.6%(465명), 가톨릭 10.0%(226명), 기타종교 4.1%(93명) 등 종교신자가 64.5%, 무교가 34.9%(786명)로 나타났다.

■ 가족과 종교일치 (60.4%)

종교를 가진 청소년들의 가족 종교 일치도를 살펴보면 가족 모두 믿는 경우(60.4%)가 가족 일부(30.9%)와 본인 혼자 믿는 경우(8.5%)보다 훨씬 많았다. 대다수의 청소년이 가족과 같은 종교를 갖고 있는 것이다. 종교를 가진 청소년들이 호감을 표시한 종교는 가톨릭(13.1%)이 불교(11.7%) 개신교(9.5%)보다 높게 나왔다. 무교인 청소년들은 불교(10.2%)에 대한 호감도가 개신교(7.7%) 가톨릭(5.6%)보다 높게 나타나 차이를 드러냈다.

■ 믿음 실생활 도움준다 (47.4%)

종교가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매우 도움(17.2%), 다소 도움(30.2%)이 별로 도움되지 않음(13.4%)과 전혀 도움되지 않음(7.8%)에 비해 높게 나

타났다. 도움이 된다고 대답한 학생들의 68.9%가 마음의 평안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해 종교를 믿음으로써 정서적인 안정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환경 따라 종교 드러내 (47.3%)

청소년들은 자신의 종교를 드러내지 않는 편(24.1%)보다 드러내는 편(27.3%)이 약간 높았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종교를 알리는 경향(47.3%)이 높아 장소와 환경에 따라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신앙의 표시인 염주, 십자가 등을 몸에 지니지 않는 청소년들은 77%로 높게 나타났다.

종교 권유에 대해서는 적극 권장하거나(10.3%), 상대방의 반응보아 권유(29.1%)하는 청소년보다 서로의 선택을 존중해 권유하지 않는(54.4%) 청소년이 압도적으로 높아 상대방의 종교를 존중하려는 태도가 강하게 보였다.

■ 개종의사 전혀 없다 (82.4%)

청소년들은 자신의 종교에 대한 믿음이 비교적 확고한 편이었다. 개종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82.4%가 개종의사가 없음을 밝혔고 15.6%만이 개종을 생각해왔음을 드러냈다. 개종을 생각했거나 개종한 이유는 친구의 권유가 29.1%로 가장 높았고 가족의 권유(13.2%), 믿고 있던 종교에 대한 실망(11.4%), 성직자의 권유(5.3%), 교리 때문에(5.3%) 등을 들었다.

■ 종교에 대한 무관심 (46.4%)

무교인 청소년들은 그 이유로 종교에 대한 무관심(46.6%)을 첫 번째로 꼽았다. 종교에 대한 불신(5.6%), 교리 이해가 어려워서(1.4%),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1.3%) 등도 종교를 갖지 않은 이유로 들었다.

한편도 종교를 가져보지 않은 청소년은 41.0%로 종교를 가진 적이 있는 청소년(35.2%)보다 약간 높았다. 종교가 있었던 청소년 가운데 개신교 신자였던 비율은 49.5%로 가톨릭(16.7%) 불교(16.3%)보다 현저하게 높았다.



종립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들이 불교를 믿는 비율은 29.8%로 나타났다. 사진은 명성여중에서 열린 교학발표 수업장면. 현대불교 자료사진

종교에 대한 호감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불교(30.9%)와 무응답(44.3%)이 75.2%로 여전히 무관심을 드러냈고 관심을 표명한 청소년들은 불교(10.2%) 개신교(7.7%) 가톨릭(5.6%)의 순으로 호감을 나타냈다.

■ 학교 불만족 (20.4%)

종립학교에 다니는 것에 대한 만족도 질문에는 보통(31.5%)과 무응답(33.2%)이 64.7%나 차지해 별다른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음을 드러냈다. 또한 만족하는 청소년(14.9%)이 불만족(20.4%)하는 청소년에 비해 낮은 수치를 기록해 저조한 만족도를 보였다. 만족 이유로는 학교 분위기가 좋아서(22.8%), 법회를 볼 수 있어서(15.7%), 불교 공부를 할 수 있어서(12.2%), 사침에 갈 기회가 많아서(8.4%) 등이, 불만족 이유로는 종교를 강요받는 것 같아서(36.8%), 불교 분위기가 싫어서(17.7%), 종교가 다르거나(5.3%), 불교가 어려워(0.8%) 등의 의견이 있었다.

종교수업에 대한 만족도 역시 보통(30.3%)과 무응답(30.8%)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러나 종립학교 재학 만족도가 저조했던 것에 비해 수업에서는 만족도(22.6%)가 불만족도(16.3%)보다 높았다.

종교수업이 재미있고(22.5%), 평소 궁금했던 불교를 알려주는 데다가(16.3%), 선생님이나(7.1%), 불교도 좋아서(4.2%)만족하다는 의견이었다. 불만족한 이유는 불교에 관심이 없어서가 29.4%로 가장 높았고 수업이 지루해서(22.3%), 교과과정과 관련이 없어서(22.0%) 등이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강의가 어려워 불만족한 경우(1.9%)는 저조했다.

■ 불교하면 '부처님·스님' 연상

'불교' 하면 부처님(39.0%)과 스님(22.2%)을 가장 많이 떠올리고 있었다. 이외에도 절(11.9%), 사찰(4.1%), 염주(3.5%), 염불(2.9%), 부처님오신날(2.5%), 참선(2.2%) 등을 연상했다. 불교에 대해 호감(22.3%)을 나타낸 청소년들은 마음·정서 안정에 도움이 되고(35.9%) 참여할 활동이 많은(10.1%) 점을, 반감(12.1%)을 나타낸 청소년들은 거부감이 느껴지거나(35.6%) 학업·생활에 도움이 안 되고(12.8%) 미신 같은(11.3%) 점을 이유로 들었다.

청소년들이 바라본 불교의 긍정적인 측면(20%)과 전통문화 보존(12.3%)을 꼽았

으며 부정적인 측면 가운데 고쳐야 할 점에 대해서는 한글화되지 않은 경전 및 의식(14.1%)과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부재(13.3%)를 지적했다.

긍정적인 측면에는 무소유 정신(8.9%), 조용한 분위기(8.2%), 수행 기풍(3.3%) 등과 믿음, 참선, 자연과의 조화 등을 긍정적인 측면으로 바라본 기타 의견 등이 있었다.

부정적인 측면에는 대사회 참여 부족-복지 봉사 구조활동 등(8.8%), 기복신앙(6.7%), 불편한 사찰 구조(6.1%) 등의 의견을 보였다. 기타 의견에는 사이버 승려 척결, 불교 수행자 본연의 자세에서 벗어난 행위, 화려한 불사·돈 밝히는 스님 퇴출, 스님들의 부정부패 등을 시급히 고쳐야 할 점으로 꼽고 있어 종단의 청정함을 청소년들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나치게 고전적인 사찰의 분위기 때문에 교회에 비해 다가서기 힘들다는 불평의 소리도 나왔다.

김원우·김지연·박봉영·김강진·유철주 기자

설문 참여학교 24개

광동중·고, 금산중·고, 금정중, 능인중·고, 동대부중·고, 동해중, 명성여중·고, 보문고, 영서고, 은석초등학교, 정광중·고, 진선여중·고, 청담중·정보초(20%)와 전통문화 보존(12.3%)을 꼽았

謹賀新年

을유년 새해 자비광명 온누리

대한불교조계종

낙산사

사부대중일동

■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전진리 55
TEL 033)672-2447~8
FAX 033)671-1445

자비의 통일신발 후원을 위한
일일착제에 성원을 보내주신
사부대중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참여불교운동본부 상임대표 **혜 총**

■ 부산시 사상구 학장동 573-1 반도프라자 101호
전화 051)322-7902 팩스 051)324-7902
이메일:02ok@korea.com

재단법인 일불선교종

금강산 약수암

주지 보혜
대중일동

호국 및 약사여래영험기도 방생 도량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리 234-1
TEL 033)682-1933, 681-3644
FAX 033)682-1707

부산광역시불교신도회 부설

부산불교최고지도자 아카데미

제6회 불교최고지도자 아카데미 수강생모집

- 교육일시 : 매주월요일 오후7-9시
- 원서접수 : 2005년1월10-3월14일
-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부산불교신도회사무국


■ 전화 051)853-2021

謹賀新年

삶과 지구를 생각합니다

자연과 인간의 공생(共生)을 생각합니다.
동양과 서양의 상생(相生)을 생각합니다.
전통과 첨단을 생각합니다.
역사와 미래를 함께 생각합니다.
세상 모든 이들이 더불어 행복한 Win-Win의 내일을 생각합니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김현해
동국대학교 총장 홍기삼



동국대학교
DONGGUK UNIVERSITY · SINCE 1906

청소년 불자들은 다른 종교인에 비해 불교에서 도움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었다. 종교를 가진 청소년 중에서는 개종 의사가 없음이 80% 이상에 육박해 첫 종교가 그대로 굳어지는 현상을 보여 주었다. 이같은 결과는 불교계가 청소년 포교에 좀더 관심을 기울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결과를 통해 청소년이 성인이 되어서도 불자로 남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과제로 남는다.

처음 믿음이 중요... 학교포교 중요성 확인

■ 상급학교 갈수록 불자 감소

청소년들의 종교의식은 초·중·고교 각각 학교별 또는 자신의 종교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나타냈다. 불교의 각각 학교별 분포는 상급학교로 갈수록 인원이 현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생들은 56.7%가 불교를 믿고 있었지만, 중학생은 29.9%로 급격히 감소했고 고교생은 초등생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7.2%에 그쳤다. 이는 초등생 11.3%, 고교생 17.9%로 조사된 개신교와 대조적인 결과라는 점에서 눈여겨 볼 만하다. 또 무종교의 비율은 초등생 18.6%, 중학생 31.8%, 고교생 39.8%로 급격히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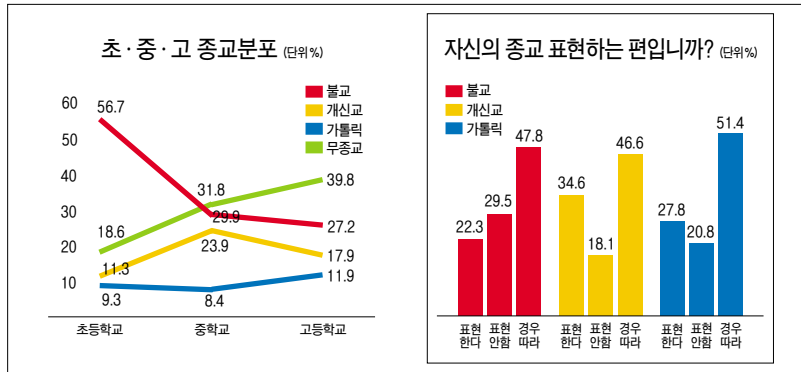
이같은 현상은 가족간 종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족과 같은 종교를 갖고 있는가'라는 문항에서 상급학교로 갈수록 비율이 낮게 나타난 것. 초교생은 66.7%가 가족과 같은 종교를 갖고 있다고 답한 반면 중학생은 60.7%, 고교생은 58.8%로 고학년이 될수록 점차 종교를 달리하는 경향을 보였다. 중·고교를 다니는 시기에 가족간 공동생활에서 벗어나려는 성향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주관과 개성이 뚜렷해지는 현상도 엿볼 수 있다. '자신의 종교를 드러내는 편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상급학교로 갈수록 드러내거나 드러내지 않는다는 답변이 늘고, 경우에 따라서만 드러낸다는 응답은 점차 줄었다. '드러낸다'는 응답은 초교생 20%, 중학생 26.1%, 고교생 29.7%였고, '드러내지 않

는다'고 답한 응답자도 초교생 10.7%에서 중학생 23.9%, 고교생 26.5%로 비율이 높아졌다. 반면 '경우에 따라 드러낸다'는 응답은 초교생 68%, 중학생 49%, 고교생 43.8%로 점차 감소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특징은 개종의사를 묻는 질문에서 초등생 84%, 중학생 82%, 고교생 83.6%가 '개종할 의사가 없다'고 응당한 점이다.

이는 처음 믿는 종교가 자신의 종교로 굳어지는 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범위를 좁혀 불교의 입장에서 보면,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포교의 중요성이 확인된 셈이다.

불교에 대한 호감도가 높지만, 반감도도 상당한 점도 눈여겨 볼만한 결과다. 불교에 대한 느낌을 묻는 문항에서 초등생은 34.4%는 호감을 느낀다. 8.3%는 반감을 갖는다고 대답했다. 반면 중·고교생은 호감도가 낮아지고 반감이 높아졌다. 중학생의 17.8%, 고교생의 25.2%가 호감을 느낀다고 답했지만, 중학생의 11.1%, 고교생의 13.5%는 반감을 느낀다고 했다.

호감을 느끼는 이유에 대해서는 초등생(70%)과 중학생(23.5%), 고교생(39.4%) 모두 마음의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또 반감을 느끼는 것은, 초등생은 '미신 같아서(35.5%)' '거부감이 느껴져서(37.5%)'를 가장 많이 선택했고, 중학생과 고교생은 '거부감이 느껴져서(34.7% 36.4%)'와 '학업에 도움이 안되어서(11.3% 12.1%)'를 1, 2위로 꼽았다.



■ 청소년 불자 '역시' 소극적

'불자는 소극적'이라는 일반적인 인식이 청소년들에게도 그대로 확인됐다. '자신의 종교를 무종교인 또는 다른 종교인에게 권유하는가'를 묻는 문항에서 청소년 불자들은 2.9%만이 '적극 권장한다'고 응답했고, 74%는 '권유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반면 개신교를 믿는 청소년들은 21.7%가 '적극 권장한다'고 꼽아 청소년불자들의 7배를 웃돌았다. 가톨릭을 믿는 청소년들은 8.8%가 '적극 권장한다'고 응답했다. '자신의 종교를 드러내느냐'는 다른 문항에서도 개신교 청소년들의 적극성이 드러났다. 청소년불자들은 22.3%가 '드러낸다'고 답했지만, 개신교는 36.6%, 가톨릭은 27.8%가 '드러낸다'고 선택했다. 청소년 불자들은 다른 종교인에 비해 불교에서 큰 도움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종교가 생활에 도움이 되는냐는 질문에서 불교를 믿는 청소년들의 34.9%만이 매우 또는 다소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별로 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도 27.1%나 됐다. 이에 반해 개신교와 가톨릭을 믿는 청소년들은 자신의 종교에서 큰 도움을 얻고 있었다. 개신교 청소년들은 '도움이 된다(61.2%)'는 응답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11.4%)'는 답변 보다 5배나 많았다. 가톨릭도 '도움이 된다'고 답한 청소년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꼽은 18.6%의 3배가 넘는 55.8%에 달했다. 그러나 3대

종교를 믿는 청소년들은 모두 도움을 받는 요소로 '마음의 평안(68.9%)'을 가장 많이 꼽았다. 또 불자 17.8%, 개신교 신자 12.3%, 가톨릭 신자 14.6%가 개종했거나 개종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이는 불자들의 만족도가 가장 낮음을 보여준 결과다. 그 이유를 묻는 문항에서 불자들은 친구의 권유(33.3%)와 가족의 권유(15.8%) 순으로 꼽았고, 개신교 신자들은 가족의 권유(24.5%)에 이어 친구의 권유(17.5%)를 선택했다. 가톨릭 신자들은 친구의 권유(24.4%), 신자의 행태(12.2%) 순으로 응답했다.

자신의 종교 외에 호감이 가는 종교를 묻는 질문에서 3대 종교를 믿는 청소년 10명 가운데 6명이 '없다'고 답한 결과는 눈길을 끈다. 다른 종교에 대해 배타적이거나 다른 종교가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는 결과다. 불자들은 호감 가는 종교로 15.3%가 가톨릭을, 10.8%가 개신교를 꼽았다. 개신교 신자들도 16.3%가 가톨릭을 가장 선호했고, 12.4%는 불교를 꼽았다. 가톨릭 신자들은 개신교(7%)보다 불교(23%)에 더 큰 호감을 느끼고 있었다.

종립학교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불자들은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반면, 다른 종교인들은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불자들은 불만족(14.3%) 보다 만족(28.6%)이 높았지만, 개신교와 가톨릭은 불만족이라는 응답이 각각 27.0%, 23.8%로 만족 보다 2배 이상 많았다. 김원우·강지연·박봉성·김강진·유철주 기자

종립 초·중·고생 종교의식 조사

설문항목	
20. 어떤 종교를 갖고 있나? ①불교 671(29.8%) ②개신교 465(20.6%) ③가톨릭 226(10.0%) ④기타종교 93(4.1%) ⑤무로 786(34.9%) ⑥무응답 130(6%)	권유한다 42(29.1%) ③서로의 선택을 존중해서 권유하지 않는다 79(54.4%) ④기타(24.3%) ⑤무응답 27(18.8%)
■종교인 문항	■비종교인 문항
1. 본인과 같은 종교를 가진 가족들은 얼마나 되나? ①본인 혼자 124(8.5%) ②가족 일부 450(30.9%) ③가족 모두 877(60.4%) ④무응답 40(2%)	10. 종교를 갖지 않는 이유가 있나? ①종교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 10(1.3%) ②종교에 대한 관심 44(5.6%) ③교리 이해가 어려워서 11(1.4%) ④종교에 관심이 없어서 366(46.6%) ⑤기타 47(6.0%) ⑥무응답 290(36.9%)
2. 종교가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나? ①매우 도움이 된다 250(17.2%) ②다소 도움이 된다 439(30.2%) ③보통 454(31.2%) ④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195(13.4%) ⑤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113(7.8%) ⑥무응답 40(2%)	11. 종교를 가진 적이 있나? ①있다 277(35.2%) ②없다 322(41.0%) ③무응답 187(23.8%) 11-1. (문 11의 ①번 응답자만 어떤 종교를 갖고 있나?) ①불교 45(16.3%) ②개신교 137(49.5%) ③가톨릭 46(16.7%) ④기타 5(1.8%) ⑤없다 1(0.4%) ⑥무응답 42(15.3%)
2-1. (문 2의 ① ②번 응답자만 어떤 부분에 도움이 되나?) ①학업 31(4.5%) ②교우관계 51(7.4%) ③가족관계 52(7.5%) ④마음의 평안 475(68.9%) ⑤기타 67(9.7%) ⑥무응답 13(1.9%)	12. 어느 종교에 가장 호감을 가지고 있나? ①불교 80(10.2%) ②개신교 61(7.7%) ③가톨릭 44(5.6%) ④기타 10(1.3%) ⑤없다 243(30.9%) ⑥무응답 348(44.3%)
3. 종교에 대한 믿음의 표시인 영수 십자가 등을 몸에 지니고 계십니까? ①그렇다 265(20.3%) ②그렇지 않다 1121(77.0%) ③무응답 39(2.7%)	■공동문항
4. 자신의 종교를 남에게 드러내는 편인가? ①드러내는 편이다 397(27.3%) ②드러내지 않는 편이다 350(24.1%) ③경우에 따라서만 드러낸다 699(47.3%) ④무응답 19(1.3%)	13. 종립학교에 다니는 것에 만족하나? ①매우 만족 81(3.5%) ②만족 256(11.4%) ③보통 711(31.5%) ④다소 불만족 292(12.9%) ⑤매우 불만족 169(7.5%) ⑥무응답 745(33.2%)
5. 혹시 종교를 바뀐거나 바뀔 생각을 한 적이 있나? ①있다 227(15.6%) ②없다 1199(82%) ③무응답 29(2.0%)	13-1. (문 13의 ① ②번 응답자만 만족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①법회를 볼 수 있어서 53(15.7%) ②불교공부를 할 수 있어서 41(12.2%) ③사찰에 갈 기회가 많아서 28(8.4%) ④학교 분위기가 좋아서 77(22.8%) ⑤기타 48(14.2%) ⑥무응답 90(26.7%)
6. 종교의 권유로 3(13.2%) ②친구의 권유로 66(29.1%) ③상징자의 권유로 125(3.1%) ④교리 때문에 125(3.1%) ⑤신자 행태 때문에 83(5.1%) ⑥믿고 있던 종교에 심판을 느껴서 26(11.4%) ⑦보통서림성 권 권유 20(8.5%) ⑧기타 61(26.9%) ⑨무응답 104(4%)	13-2. (문 13의 ④ ⑤번 응답자만 불만족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①불교가 어려워서 40(8.8%) ②불교 분위기가 싫어서 82(17.7%) ③종교가 다양해서 24(5.3%) ④종교를 강요받는 것 같아서 17(3.6%) ⑤기타 306(6.6%) ⑥무응답 151(32.8%)
6. 본인이 믿는 종교 외에 호감이 가는 종교는 무엇인가? ①불교 170(11.7%) ②개신교 139(9.5%) ③가톨릭 191(13.1%) ④기타 43(2.9%) ⑤없다 881(60.5%) ⑥무응답 31(2.1%)	14. 종교수업에 대해 만족하나? ①매우 만족 208(9.3%) ②다소 만족 300(13.3%) ③보통 682(30.3%) ④다소 불만족 194(8.7%) ⑤매우 불만족 173(7.6%) ⑥무응답 696(30.8%)
7. 거부감 혹은 거부감이 느껴지는 종교는 무엇인가? ①불교 269(18.5%) ②개신교 212(14.6%) ③가톨릭 149(10.2%) ④기타 15(10.4%) ⑤없다 651(44.7%) ⑥무응답 23(1.6%)	14-1. (문 14의 ① ②번 응답자만 만족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①재미있어서 115(22.5%) ②매소 공감해서 불교를 알 수 있어서 83(16.3%) ③선생님이 좋아서 36(7.1%) ④불교가 좋아서 21(4.2%)
9. 무종교거나 타종교인 친구에게 자신의 종교를 권유해 본 적이 있나? ①자신의 종교를 적극 권장한다 150(10.3%) ②상대방의 반응을 보아	5기타 31(6.1%) ⑥무응답 223(43.8%) 14-2. (문 14의 ④ ⑤번 응답자만 불만족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①강요가 어려워서 7(1.9%) ②수업이 지루해서 82(22.3%) ③교과과정과 관련이 없어서 81(22.0%) ④불교에 관심이 없어서 108(29.4%) 5기타 35(9.6%) ⑥무응답 54(14.8%)
	15. 불교에 대한 느낌은? ①매우 호감 250(11.0%) ②다소 호감 254(11.3%) ③보통 749(33.2%) ④다소 반감 171(7.6%) ⑤매우 반감 101(4.5%) 15-1. (문 15의 ① ②번 응답자만 호감을 갖는 이유는 무엇인가?) ①마음평시의 안정에 도움이 되서 181(35.9%) ②학업(생활)에 도움이 되서 15(2.9%) ③힐스님이 좋아서 35(9.9%) ④참여할 수 있는 활동 많아서 51(10.1%) ⑤불교의 대화활동이 부족해서 7(1.4%) ⑥기타 14(2.7%) ⑦무응답 181(35.9%)
	15-2. (문 15의 ④ ⑤번 응답자만 반감을 갖는 이유는 무엇인가?) ①미신 같아서 31(11.3%) ②거부감이 느껴져서 97(35.6%) ③학업(생활)에 도움이 안되어서 35(12.8%) ④사찰(스님)이 무서워서(싫어해서) 15(5.6%) ⑤불교의 대화활동이 부족해서 11(4.1%) ⑥기타 14(5.2%) ⑦무응답 69(25.4%)
	16. 관광의 목적으로 절에 가본 적이 있나? ①있다 740(28.5%) ②없다 649(28.7%) ③무응답 855(38.3%)
	17. 불교의 긍정적인 측면 가운데 살려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조용한 분위기 186(8.2%) ②수행 기쁨 73(3.3%) ③불교문화재 보존 45(32.0%) ④전통문화 보존 27(12.3%) ⑤무소유 정신 201(8.9%) ⑥기타 74(3.3%) ⑦무응답 992(44.0%)
	18. 불교의 부정적인 측면 가운데 시급히 고쳐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대사찰 참여 부족해서 봉사 규모 축소 등 200(8.8%) ②한글화되지 않은 경전 및 서 319(14.1%) ③불법한 사찰 구조 138(6.1%) ④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부재 300(13.3%) ⑤기타(의상) 149(6.7%) ⑥기타 147(6.5%) ⑦무응답 1001(44.5%)

* 전체 설문항목은 컷다뉴스(buddhanews.com)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빛을 만드는 회사!

발전설비 및 담수부문 세계 1위, 두산중공업입니다!

발전설비(HRSG부문) 세계 1위, 핵수담수화 플랜트 세계 1위- 하지만 두산중공업의 저부상은 세계 1위의 기술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뜻을 만들고 바다를 마실 물로 바꾸는 초일류기술에는 대한민국적 기술 경쟁력을 이끄고 세계인의 삶에 희망을 전하는 두산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두산이 더 큰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